

제16회 불조심 표어·포스터



최우수작



도재현



장려작



시계반대방향순으로
이병덕
전우진·송경아(공동작)
심길호
황법상·임현빈·김근영(공동작)
오창인·전성배(공동작)

불조심 포스터 심사평

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윤 호 섭

우선 출품자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

수십년간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이 개최되어 왔기에 괜찮다 싶은 아이디어는 이미 모두 사용되었고 새로운 생각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제작자들이 아이디어를 찾는데 고심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이러한 이유에서 반신반의하며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작품심사에 임했으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화재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작품들이 다수 발견되어 아이디어는 끝없는 나오는 것이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최우수작의 영광을 안은 "순간순간 불조심"편은 화재위험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시계의 초침과 성냥불을 결합한 이미지로 시각화하여 발군의 창조력을 과시했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화재는 인재"편은 모든 책임을 우리모두에게 부과하는 경고성 메시지로 사람인자 한문의 양화를 성냥불로 대치하는 조형기법으로 표현하여 주목을 받았다.

같은 우수작 "불만있습니까? 조심도 함께 하십시오"편은 이중적 의미의 문안을 불꽃이 터지는 성냥불과 조화시킨 흥미로운 메시지로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이 작품의 경우 문자의 크기나 성냥불 그림의 시각적 효과가 완벽한 반면 "불만"을 상징할 수 있는 제3의 시각요소 가 적절히 추가되면 더 높은 평가를 할 수 있었음을 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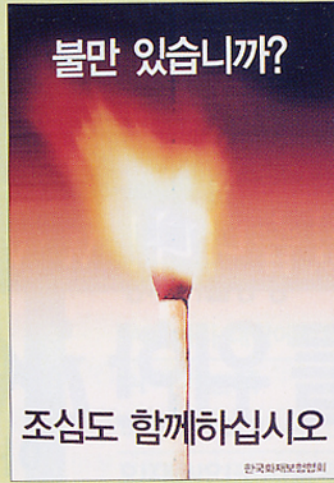
장려상을 받은 "불조심, 잊고 나오지 않으셨습니까?"편은 집을 가스관으로 표현한 의인화가 돋보였고, 생일 케이크의 촛불로 표현한 "행

현상공모 수상작품

우수작



양 현 · 이아진(공동작)



이희복



입선작

가작

홍수현/이광호 · 김해석/
이병하/이수진/정셋별/
이은정/박미현/이우철/
김진영/윤호진

시계방향순으로
권봉화
하동현 · 강현주(공동작)
배웅선 · 이창일(공동작)
김수정
황금남



복한 불, 소중히 다룹시다”편은 조용히 불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생각케하는 작품으로 평가를 받았다.

“내가습연 언제나 불조심”편도 불조심에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한가란 뜻으로 리본을 흘로즈업시킨 레이아웃이 돋보였다. 담배불과 불타는 숲으로 결합한 “방심이 큰 불 된다”편은 문안과 그림이 포스터로서 가장 이상적인 크기로 배열되어 있어 실제로 사용되어도 전달력이 클것으로 확신했었고, 같은 장려상을 받은 “불조심 쉬는 날이 없습니다”편도 날일자의 글자 속을 어떻게 처리하고 성냥불을 넣어 시각적 묘미를 표현하여 주목을 받았다.

그밖의 입선작들도 앞의 입선작들과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고 크게 뒤지지 않았었다.

평범한것 같으나 의인화로 표현한 “조심하면 고마운 불 방심하면 무서운불”편, 붉은 지면을 흰 서치라이트 불빛으로 채운 “꺼진 불도 다시확인”편도 입선작들과 끝까지 우열을 겨룬 수작들이었음을 전한다.

다시 한번 출품자들의 창조적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불의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귀중한 물줄기가 되리라 믿는다.

표어부문

최우수작

화재장소 따로없고 화재시간 예고없다 / 이종석

우수작

남의일로 여긴화재 방심하면 내일된다 / 임혜춘

작은불씨 방심하면 재난되어 돌아온다 / 이상훈

장려작

살피봐요 숨은불씨 다시봐요 꺼진불씨 / 박세미

먼저살핀 작은관심 미리마는 재난재해 / 박정웅

가작

내가하는 화재점검 우리가족 행복점검 / 민영기

생활속의 불조심 화재없는 밝은내일 / 원경환